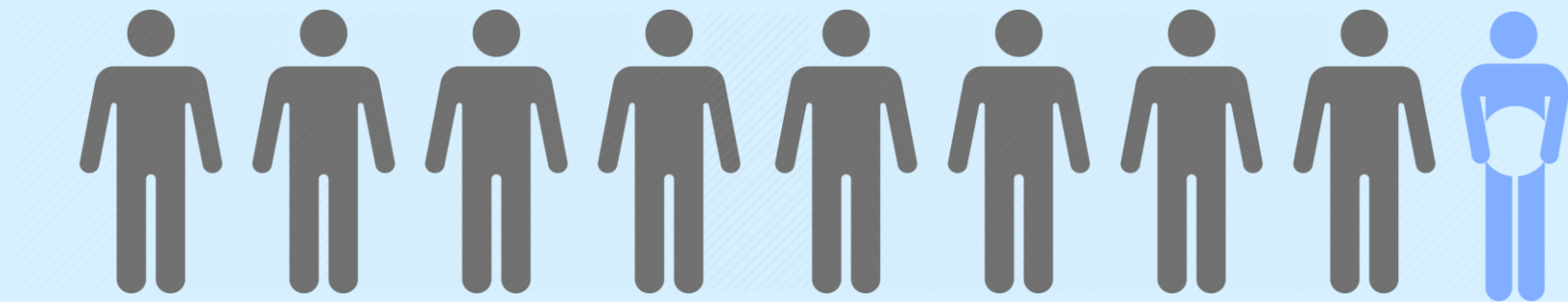


오늘은, 또 얼마나 버렸나요?

세계 식량의 날 World Food Day



어느 때보다도
식량이 풍요로운 오늘 날,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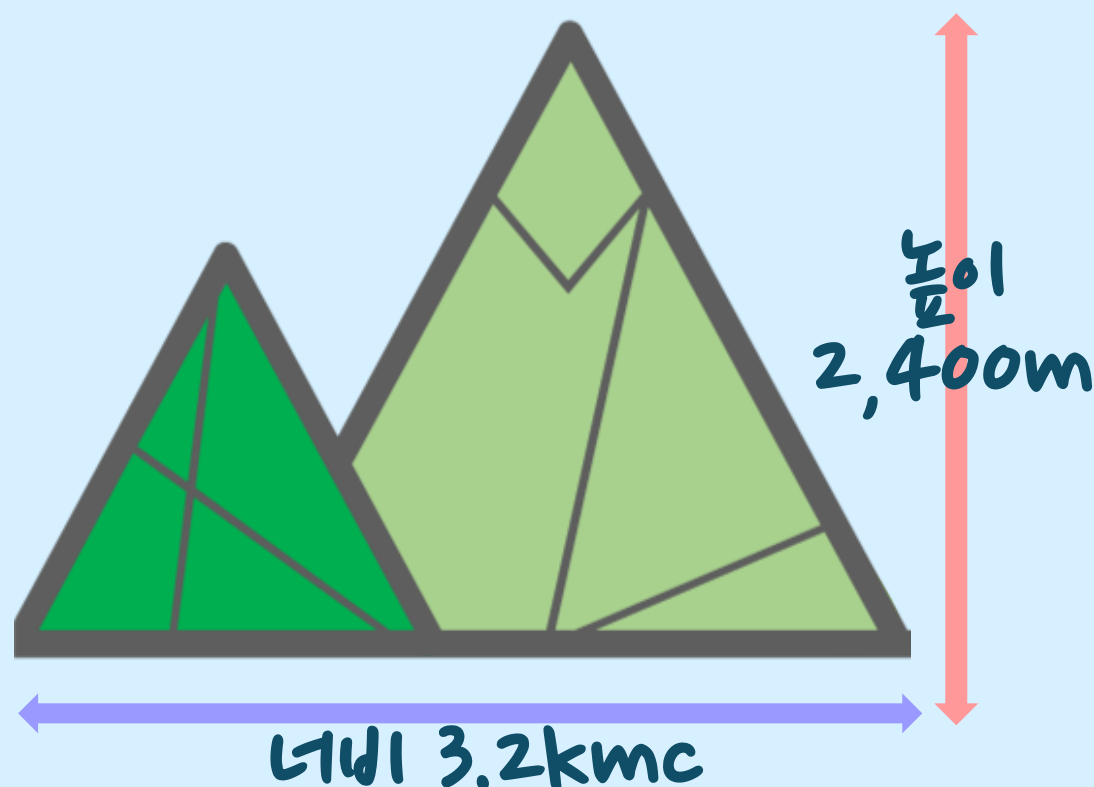


도대체 왜,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식량농업기구(FAO)는 말합니다.

“음식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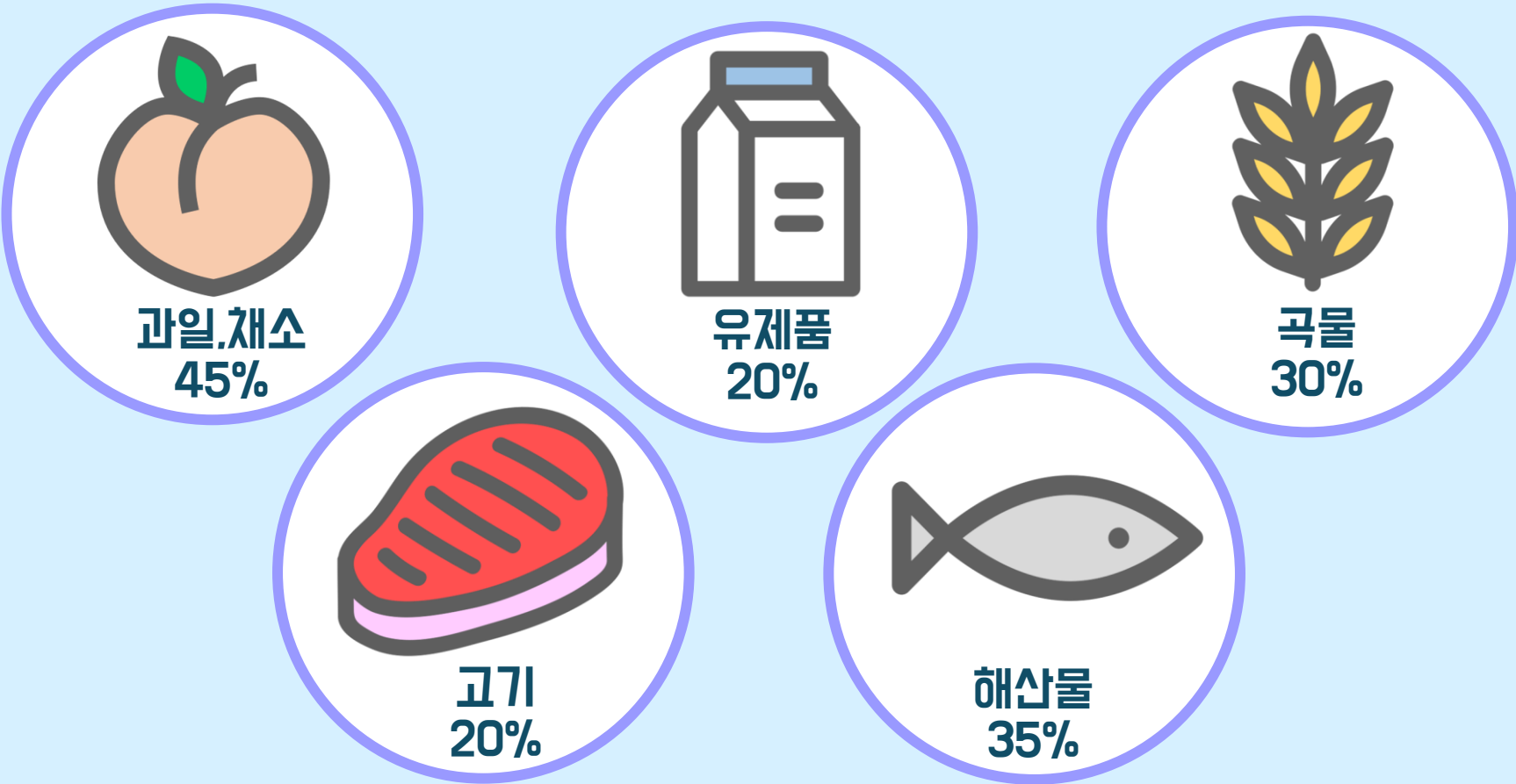
매년 **40억 톤**의 식량이 생산
되는데,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은 무려 **13억 톤**에 달합니다.

쓰레기산 크기는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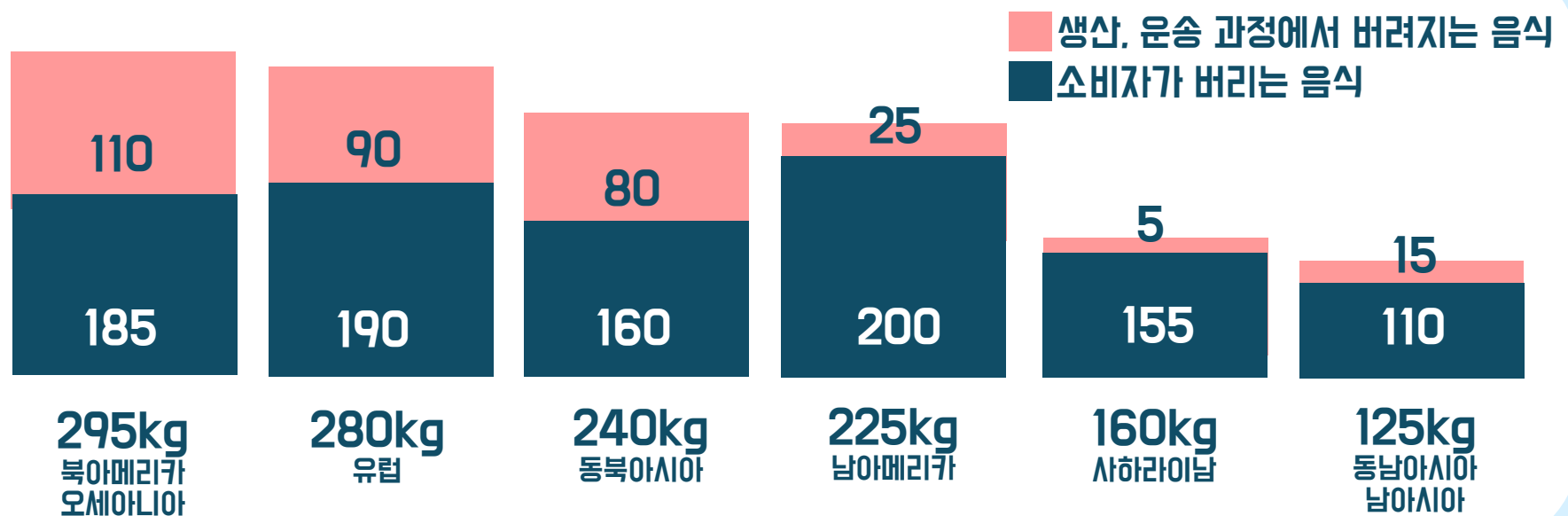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버려지는 쓰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별 폐기되는 비율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대륙별로도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매년 적게는 **125kg**,
많게는 **295kg**까지 엄청난 양의
음식이 버려집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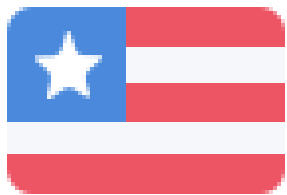
**도로, 창고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대다수의 식량이
생산, 운송 과정에서 버려집니다.**

**반면, 선진국에선 절반 이상의
식품이 소비자의 손에서 버려집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버려진다고 하니,
우리도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세계 식량 위기만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년, 13억 톤의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만 연간 500만 톤이
넘는데, 처리 비용만 8,00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500만 톤

처리 비용



8,000억 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팔다 남은 식품, 기부해야 합니다”

프랑스 마트에서는 팔다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71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정부는
마트가 남은 식품을 기부하도록
법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트가 기부하는 음식이
15%만 더 늘어도 매년 **천만 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법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끼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푸드뱅크에 음식을 맡기세요”

식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뱅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생산, 유통 단계에서 남는 먹거리를
기부 받아, 결식 아동, 독거 노인,
무료 급식소에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수확'으로 불리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간 푸드뱅크는
1997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 세계 음식 쓰레기의 **25%만**
줄어들어도, 영양 실조에 시달리는
7억 9,500만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세계시민교육 보니파

Bon Idea To Action, Bonita
www.ibonita.org

보니파 소식이 궁금하다면
보니파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facebook.com/ibonita2016